

북한의 공식담론에 나타나는 영예군인과 그를 돌보는 여성 이야기의 사회적 의미 분석

김석향(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협동과정 교수)

1. 서론

지구상 어느 곳에서도 장애인 존재하고 이들의 일상생활 현황은 어느 정도 그 사회의 대중매체를 통해 나타나게 마련이다. 그런데 유독 북한의 대중매체에서는 장애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려 주는 자료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렵다. 간혹 드물게 장애인의 생활상을 소개하는 자료를 찾았다고 해도 장애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사례는 나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001년 6월 21일에 방영한 <조선중앙텔레비죤> 보도에는¹⁾ 보천군 내곡고등중학교²⁾ 교사가 자신이

-
- 1) 이 논문에서는 북한용어를 사용하거나 북한자료를 직접 인용할 경우에 국한하여 우리말 맞춤법에 맞지 않는다고 해도 그대로 표기하는 방식을 따랐다.
 - 2) 북한당국은 2002년 9월을 기준으로 인민학교를 소학교로, 고등중학교를 중학교로 그 명칭을 변경하여 시행하였다.

담임을 맡은 학급에 장애학생이 배정되자 친어머니의 심정으로 그 학생을 매일 업어서 등하교시킨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런 유형의 보도는 본질적으로 장애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여 장애인을 돌보는 인물이 누구인지 소개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장애인의 생활상을 언급하게 된 현상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유독 영예군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현상이 나타난다. 영예군인이란 “군사복무 기간 부상을 입고 제대되어 국가적 혜택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는데³⁾ 이들은 북한의 텔레비전이나 잡지를 비롯한 대중매체에서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자주 등장한다. 2002년 2월 22일에 방영한 <조선중앙텔레비죤> 보도에는 제대군인이며 당원인 차은실이라는 여성이 “부상이 특별히 심한 부류에 속하는” 특류영예군인⁴⁾ 김철과 결혼식을 올렸다는 소식을 전한다. 그로부터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2월 27일에는 <조선중앙텔레비죤> 보도에서 개천-태성호 물길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던 강원도 돌격대원 여성들이 특류영예군인과 결혼식을 올렸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런가 하면 북한당국이 발간하는 월간잡지인 『천리마』를⁵⁾ 비롯하여 『조선녀성』⁶⁾, 『조선문학』⁷⁾, 『조선예술』⁸⁾, 『청년문학』⁹⁾ 등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영예군인 이야기

3) 『조선말 대사전(증보판)』(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7), 1449쪽.

4) 위의 책, 391쪽.

5) “한 영예군인의 집에 찾아오시여,” 『천리마』, 통권 436호(1995), 54쪽; “영예군인의 딸,” 『천리마』, 통권 477호(1999), 46쪽.

6) 김희백, “한 특류영예군인을 위해 바치는 정성,” 『조선녀성』, 누계 561호(2005), 44~45쪽; 유정옥, “영예군인의 안해,” 『조선녀성』, 누계 264호(1967), 37~38쪽.

7) “한 영예군인의 모습 앞에서,” 『조선문학』, 통권 527호(1991), 79쪽.

8) “올려가라 혁명적 랑만의 노래, 불타는 충성의 노래,” 『조선예술』, 통권 410호(1991), 20쪽.

9) 김인철, “그 영광은 한 영예군인 시인에게도,” 『청년문학』, 통권 475호(1998),

가 시간을 초월하여 꾸준하게 등장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김일성과 김정일이 나서서 영예군인이야말로 예외적으로 우대를 받아야 하는 특별한 존재로 부각시켜 왔다는 점은 “유일지도체제”를 주장하는 북한사회에서 주민들의 행위 양식을 규정하는 지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김일성은 영예군인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그들의 생활을 늘 세심하게 돌보아주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¹⁰⁾ 이들이 “자기 개인을 위하여 싸우다 부상당한 것도 아닌” 만큼 “국가에서” 돌봐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하였다.¹¹⁾ 김정일도 “전쟁로병과 영예군인들을 존대하는 것은 총대로 승리하여 온 우리 혁명의 전통이며 우리 사회의 고상한 정신도덕적 기풍”이라고 단언하였다.¹²⁾

북한에서 영예군인이 대중매체에서 다양한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배경에는 이들은 다른 장애인과 달리 구별하여 “국가에서” 마땅히 돌봐주고 존대해야 할 존재로 인정하는 북한 내부의 담론 구조가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영예군인을 돌보고 존대해야 한다는 북한의 담론 구조에서 여성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영예군인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존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성이기 때문이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친어머니, 친누이의 심정으로 영예군

24쪽.

10) 김일성, “피로써 조국을 지킨 영예군인들은 사회주의 건설에도 모범이 되어야 한다,” 『김일성저작집』, 제1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417쪽; 김일성, “함흥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처럼 공장을 알뜰히 꾸리자,” 『김일성저작집』, 제2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283쪽.

11) 김일성, “영예군인들은 혁명의 꽃을 계속 피우며 락천적으로 생활하여야 한다,” 『김일성저작집』, 제4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479쪽.

12)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에 대한 존경,” 『조선녀성』, 누계 572호(2006), 40쪽.

인을 보살피기도 하고¹³⁾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영예군인을 찾아가 인생의 길동무가 되겠다는 뜨거운 마음을 밝히기도 한다.¹⁴⁾ 또한 영예군인이 이발소로 오는 것이 불편할까 염려하는 마음에 “읍 중심에서 퍼그나 먼 곳”인 그 집으로 찾아가서 이발해주는 여성 이발사가 있는가 하면¹⁵⁾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자체의 힘으로” 영예군인이 살게 될 “현대적인 살림집”을 한 달 안에 완공한 “녀맹위원회 일군들과 녀맹원”들이 등장하기도 한다.¹⁶⁾ 그런가 하면 길을 지나다가 우연히 만나게 된 하반신 마비의 특류영예군인을 성심성의껏 치료하여 마침내 그가 “삼륜차를 집어던지고 지팡이에 의지하여 자체로 대지를 확보하게” 만들어 준 여의사도 볼 수 있다.¹⁷⁾

그중에서도 특히 필자의 관심을 끄는 이야기 유형은 얼굴도 모르는 처녀가 우연히 알게 된 특류영예군인을 찾아가 결혼식을 올리고 그의 눈과 귀가 되고 손과 발이 되어 정성껏 돌보며 살아간다는 내용이다. 이야기는 대체로 여성이 결혼 상대자인 남성 특류영예군인을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와 결혼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결혼 상대자로 지목을 받은 남성 특류영예군인은 그렇게 “훌륭한” 여성의 호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양하면서도 자신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말로 협상의 여지를 드러낸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은 끝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 “뜨거운 마음”

13) 김희백, “한 특류영예군인을 위해 바치는 정성,” 44~45쪽.

14) 태은식, “마을이 사랑하는 녀성,” 『조선녀성』, 누계 462호(1992), 32~33쪽.

15) 김희백, “영예군인들이 사랑하는 리발사: 구장군 편의봉사관리소 녀맹원 최웅호동무,” 『조선녀성』, 누계 478호(1995), 34쪽.

16) 김희백, “새날동에 생긴 영예군인 살림집,” 『조선녀성』, 누계 480호(1995), 33쪽.

17) 김명규, “영예군인과 녀의사: 김만유병원 의사 김선화동무,” 『조선녀성』, 누계 497호(1998), 34~35쪽.

을 호소하며 주변사람들 역시 이 결혼이야말로 “우리식 사회주의 사회”에서 꽃피나는 “아름다운 소행”이라고 칭송함으로써 마침내 두 사람은 “만 사람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 상을 받고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간혹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가 나서서 “대단히 훌륭한 일이라고” 높이 평가하거나¹⁸⁾ “그들의 결혼식 날자까지 친히” 선정하고 “뜻 깊은 결혼식상을 마련해” 주는가 하면 “이들의 소행을 신문과 방송, 출판물들에서 널리 소개선전할데 대한 온정 깊은 배려를 돌려”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¹⁹⁾

필자는 이런 이야기가 방송이나 잡지의 한 구석을 장식하는 기사 수준에서 벗어나 실제로 북한사회 전역에 널리 알려진 사회적 담론의 주요 유형이라는 점을 북한이탈주민 면담에서 확인하였다. 면담에 응해준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에서는 누구나 그런 이야기에 익숙할 것이라고 대답해주었다.²⁰⁾ 이들은 영예군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자신도 모르게 “얼굴도 모르는 처녀가 하반신이 마비된 남자에게 시집가서 사는” 이야기가 떠오를 정도로 익숙한 내용이라고 단언했다.

이런 유형의 이야기를 통해 필자는 몇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되었다. 도대체 이런 이야기에서 특류영예군인인 남성과 그를 돌보는 여성의 관계가 남편과 “안해”로 고착되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특류영예군인인 여성을 찾아가서 그녀의 남편이 되어 지성껏 돌보겠다고 나서는 남성의 이야기는 잘 포착되지 않는 것인가? 남성 영예군인

18) 태은식, “희천의 <영예군인집>: 서상보, 류찬실 로인과 그의 네 딸에 대한 이야기,” 『조선녀성』, 누계 461호(1992), 32~33쪽.

19) “당의 은정속에 꽃피나는 새가정,” 『조선녀성』, 누계 455호(1991), 33~35쪽.

20) 2010년 3월, 필자와 북한이탈주민(30대 후반 여성과 40대 중반 여성)의 면담 자료; 2010년 4월, 필자와 북한이탈주민(50대 초반 여성)의 면담자료.

과 그를 돌보는 여성의 사회적 관계를 묘사하는 담론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또 이런 담론이 만들어지고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등장인물의 특정한 행위 유형을 독려하거나 만류하는 근거로 활용된 북한사회 특유의 논리 구조는 무엇인가? 북한에서 남성 영예군인과 여성 영예군인은 사회적 위상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 차이 나는 대접을 받고 있는가? 북한당국은 이런 유형의 이야기를 통해 누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가? 이와 같은 의문은 필자가 이 연구를 시작하도록 이끌어 준 출발점이었다.

이 연구는 북한당국이 여성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종합교양지 『조선녀성』에서²¹⁾ 영예군인이나 특류영예군인과 그들을 보살피는 여성의 관계를 소재로 어떤 유형의 사회적 담론을 소개하는지 살펴보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한다. 『조선녀성』을 주요 분석대상 자료로 선정하는 이유는 영예군인 이야기에서 이들을 돌보는 인물로 여성이 등장하지 않는 경우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북한에서 일반 장애인과 달리 영예군인이나 특류영예군인이 어떤 존재인지, 이들을 돌본다는 것은 북한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지닌 행위인지 살펴보고 관련 분야의 선행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분석대상 자료의 특성을 간략하게 소개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영예군인과 이들을 보살피는 여성 사이에 어떤 유형의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는지 살펴보고 이런 관계를 통해 북한 여성이 누리는 사회적 지

21) 『조선녀성』은 북한의 유일한 여성조직인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에서 기관지로 발행하는 월간잡지로 1946년 9월에 제1호를 발간하였다. 1982년 6월 이후 2000년 12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는 발간형식을 격월간지로 바꾸어 연간 6회 출판하였으나 2001년 1월 이후에는 다시 월간지로 바꾸어 현재까지 그 형식을 유지하고 있다.

위의 실제적 현황을 추론하는 한편 『조선녀성』의 영예군인 관련 기사를 통해 북한당국이 주요 독자층인 여성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 하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이 연구의 의의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장애인과 영예군인의 사회적 지위 및 관련 분야의 선행 연구 검토

앞서 지정한 바와 같이 북한의 대중매체에서는 영예군인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려 주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영예군인은 북한의 대중매체에 사실상 유일하게 등장하는 장애인 유형에 해당한다. 이 부분에서는 영예군인·특류 영예군인이 북한사회에서 어떤 지위를 누리는지 살펴보고 관련 분야의 선행연구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장애인과 영예군인의 사회적 지위

북한당국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처우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1946년 12월에 제정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135호 사회보험법을 시초로 한다. 이 법은 “질병, 부상으로 불구²²⁾ 또는 폐질이 되었

22) 북한당국이 장애인을 지칭하는 공식용어로 장애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2003년 6월에 장애자지원법을 제정한 이후의 일로 보인다. 그 이전에는 북한의 법률을 비롯한 각종 공식문서와 언론보도에서 일반적으로 불구자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 1998년 7월에 발족한 조선불구자지원협회도 장애자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조선장애인지원협회로 그 명칭을 바꾸었다.

을 때 연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해 놓았는데 연휴금 지급의 기준은 노동능력을 어느 정도 상실했는가 하는 점에 둔다.²³⁾ 노동능력의 상실 여부를 기준으로 장애인에 대한 처우를 산정하는 북한당국의 관점은 그 이후에도 1978년에 제정한 사회주의 노동법이나 1980년에 제정한 인민보건법, 1997년에 제정한 의료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²⁴⁾ 2003년 6월에 제정한 장애자지원법을 통해 이런 관점에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지만²⁵⁾ 장애인에 대한 북한당국의 처우가 기본적으로 노동능력 상실 여부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이상에서 검토한 관련 법률의 조문으로 미루어 볼 때 북한에서도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발생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장애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려주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 언론매체에서 장애학생을 업어서 등교시키는 교사는 나타나지만 그 등에 업혀서 학교를 다니는 장애학생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언급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북한당국이 발행하는 각종 자료의 현실이

23) 노용오, “북한의 장애인복지 정책·제도·지원전략,” 『한국동북아논총』, 제41집 (2006), 215~234쪽; 이 법은 제81조에서 폐질연휴금 지급의 기준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류: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타인의 간호를 필요하는 자, 제2류: 일반적인 보통 노동능력을 상실한 자, 제3류: 자기 직업의 노동을 그 직업의 보통 사정 밑에서 계속적으로 노동할 능력을 상실하였으나 불규칙한 노동 또는 노동시간의 단축 혹은 타의 직업에 있어서 현저히 자격을 저하시킨 노동을 할 수 있는 자.

24) 사회주의노동법 제78조: 국가는 노동능력을 잃은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불구자들을 양로원과 양생원에서 무료로 돌보아준다, 인민보건법 제13조: 국가는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어린이와 만성환자, 년로한 환자들에게 무상치료의 혜택이 잘 차례지도록 그들을 책임적으로 돌보아준다, 의료법 제35조: 의료감정을 공정하게 하는 것은 의료사고나 노동능력상실정도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 요구이다. 의료기관과 해당기관은 의료감정체계를 바로 세우고 의료감정을 제때에 정확히 하여야 한다.

25) 이 법은 제2조에서 “장애자는 육체적, 정신적 기능이 제한 또한 상실되어 오랜 기간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받는 공민”으로 규정해놓았다.

다. 예를 들어 2002년 2월 21일 <조선중앙텔레비죤> 보도는 평양철도국 신성천 2호 발전소 건설공사에 참가했다가 숨진 청년돌격대원에게 훈장과 애국희생증을 수여했다는 소식을 전한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자가 나오는 사고가 일어났다면 당연히 그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보도에서 부상자를 어떻게 처우했는지 언급하는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

반면 영예군인에 대한 처우를 논의할 때에는 북한당국의 태도가 완연하게 달라진다. 북한당국은 영예군인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배려” 및 “사회적 우대”를 해야 한다는 점을 끊임없이 강조한다.²⁶⁾ 특히 장애자지원법은 제7조에서 “국가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한 영예군인을 비롯한 장애자를 사회적으로 우대하도록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영예군인은 선천적 요인이나 사고 발생에 따른 장애인과 달리 특별대우를 받아야 할 존재라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해준다. 또한 김일성이 직접 나서서 “영예군인들과 불구자로 된 애국자들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진출하여 일할 수 있도록” 영예군인학교를 설치하고²⁷⁾ 영예군인공장을 설립하여²⁸⁾ 이들이 일하며 생활하는 데 필요한 온갖 조건을 다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독려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북한사회 전역에서는 기차나 버스, 식당에 영예군인 좌석을 지정하고 상점이나 편의봉사망에서 “영예군인 우선 봉사”라는 안내문을 설치한 채 이들을 우대하는 것을 관행으로 삼는다.²⁹⁾ 또한

26) 인민보건법 제11조: 국가는 혁명투사, 혁명 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영예군인, 인민군 후방가족들의 건강관리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돌린다.

27)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제1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332~333쪽.

28) 김일성, “영예군인들은 혁명의 꽃을 계속 피우며 락천적으로 생활하여야 한다,” 479쪽.

29) “한 영예군인의 모습 앞에서,” 79쪽.

영예군인에게는 “집 안에 수도, 세면장, 위생실, 창고가” 다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난방 시설까지 갖춘 살림집을 공급하기도 하고³⁰⁾ 그렇게 할 형편이 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들이 나서서 살림집을 마련해주기도 한다.³¹⁾ 게다가 영예군인 총각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불현듯 낯선 처녀가 찾아와서 결혼을 하겠다고 자청하기도 하고 아예 처녀의 어머니와 오빠 등 온 가족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결혼을 성사시키는 사례도 나타난다.

이런 사례로 미루어 볼 때 북한사회에는 일반 장애인과 달리 영예군인은 특별한 사회적 지위를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 구조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신체적 조건의 측면에서 여타 장애인과 다를 바가 없어도 영예군인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몸을 지니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일반적인 장애인과 달리 특별한 존재이고 필요하다면 이들을 위해 사회 구성원 누군가 희생을 감내해도 무방하며 오히려 영광스럽게 여겨야 한다는 사회적 논리가 북한사회 내부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희생을 감내하면서도 영광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존재는 사회구성원 전체가 아니라 바로 “녀성”이라는 것이 『조선녀성』 관련기사가 공통적으로 시사하는 북한 내부의 논리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분야의 선행연구 검토

북한의 영예군인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는 사실상 찾아볼 수 없었다. 영예군인에 관한 연구는 물론이고 그보다 기본적인 단계라고 할 수

30) “한 영예군인의 집에 찾아오시여,” 53~54쪽.

31) 김희백, “새날동에 생긴 영예군인 살림집,” 33쪽.

있는 북한의 장애인 관련 연구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북한의 장애인 분야 연구는 지금까지 법률과 정책 등 공식화된 제도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검토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³²⁾ 한편 특수교육 분야에서 북한의 장애인 교육 현황과 역사적 전개 과정을 검토한 연구가 나온 일이 있었다.³³⁾

그런데 이런 시도는 일회성에 그치고 관련 분야의 후속 연구가 계속 이어지지 않았다. 말하자면 오늘날 북한에서 장애인의 주요 유형을 구성하는 영예군인이나 특류영예군인의 생활 현황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망의 특성을 분석하려는 시도는 아직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영예군인 및 특류영예군인을 포함하여 북한의 장애인 관련 연구가 활발하지 못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해당 분야의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당국이 발행하는 자료를 다양한 방식으로 가공하여 장애인 관련 분석의 토대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향후 북한사회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연구는 북한의 영예군인 관련 자료의 저변을 확대하고 나아가 북한의 장애인 현황을 연구하는 첫 걸음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북한 여성에 관한 연구는 장애인이나 영예군인 분야와 비교해 볼 때 훨씬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북한 여성을 주제로 한 연구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우선 관련 분야의 법률과

32) 노용오, “북한의 장애인복지 정책·제도·지원전략,” 215~234쪽; 이철수, 『북한 보건의료법제: 원문과 해설』(서울: 아주남북한보건의료연구소, 2006); 이철수, 『북한사회복지법제: 알파와 오메가』(서울: 높이깊이, 2005).

33) 김동일·배성직, “북한의 특수교육: 역사적 전개와 현황에 대한 이해,” 『특수교육연구』, 제8집(2001), 27~46쪽.

제도 변화에 관한 연구가 있다.³⁴⁾ 다음으로 북한 여성의 정체성을 연구하는 논문들도 나왔다.³⁵⁾ 또한 경제난과 북한여성의 삶을 연결시켜 분석하는 시도가 나오기도 했다.³⁶⁾ 그리고 여성 문제와 관련한 북한 당국의 공식담론을 분석하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³⁷⁾

그러나 이 분야의 선행 연구에서 여성과 북한 내 다른 집단의 사회적 관계망을 분석하려는 시도는 보이지 않는다. 말하자면 여성이 다른 집단과 어떤 유형의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관계 속에서 북한 당국이 여성들을 어떻게 격려하고 지도하는지 분석하려는 시도는 없었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연구는 북한 여성의 사회적 관계망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학문적 시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34) 최선영, “북한여성의 지위와 역할 변화: 관련 법령분석을 중심으로,” 『동북아연구』, 제23권 1호(2008), 87~110쪽.

35) 서곡숙, “거짓말/방문/가출이라는 북한영화의 내러티브 반복과 연기/침입/일탈이라는 북한여성의 자아정체성 재현,” 『영화연구』, 제33호(2007); 이상경, “북한 여성 작가의 작품에 나타난 여성 정체성에 대한 연구,” 『여성문학연구』, 제17권(2007).

36) 박영자, “경제난 이후 북한 체제와 젠더의 구조 및 변화,” 『통일논총』, 제25권(2007); 임순희, “경제난과 북한여성,” 『통일논총』, 제25권(2007); 임옥규,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문학에 나타난 여성, 모성, 조국에 양상: 『조선문학』(1997~2006)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16권(2007).

37) 김석향, “남녀평등과 여성의 권리에 대한 북한당국의 공식담론 변화,” 『북한연구학회보』, 제10권 1호(2006); 김석향·권혜진, “고난의 행군기 이후 북한당국의 공식담론 분석,” 『통일정책연구』, 제18권 2호(2009).

3. 분석대상 자료의 개관

이 논문의 일차적 분석대상 자료는 2010년 5월 시점을 기준으로 필자가 입수한 『조선여성』 1956년 1월호 이후 2008년 12월호에 수록된 영예군인 관련 기사 내용이다. 그중에서도 제목에 “영예군인”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기사로 한정하여 찾아본 결과 총 12건을 찾았다. 각각의 기사 제목과 그 기사를 수록한 제호는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1>을 살펴보면 『조선여성』은 1956년 1월호 이후 2008년 12월호에 이르기까지 총 607호를 발행하면서 제목에 영예군인이라는

<표 1> 제목에 영예군인이 포함된 『조선여성』 기사 목록

권호	제목	쪽
1967.10	영예군인의 안해	37
1992.04	희천의 <영예군인집>: 서상보, 류찬실 로인과 그의 네 딸에 대한 이야기	32
1995.03	영예군인들이 사랑하는 리발사: 구장군 편의봉사관리소 녀맹원 최웅호 동무	34
1995.05	새날동에 생긴 영예군인 살림집	33
1998.04	영예군인들을 위하는 뜨거운 마음(사진)	24
1998.04	영예군인과 녀의사: 김만유병원 의사 김선희동무	34
2001.09	영예군인의 안해(가사)	31
2005.02	한 특류영예군인을 위해 바치는 정성: 운산군 복진로동자구 초급녀맹위원회 제5부문녀맹원들에 대한 이야기	44
2005.05	한 특류영예군인을 위해 바쳐가는 뜨거운 마음(사진)	24
2006.01	전쟁노병들과 영예군인들에 대한 존경	40
2006.07	영예군인을 위해 바치는 뜨거운 정성: 평성시 구월동초급녀맹위원회 일군들과 녀맹원들	40
2008.04	영예군인의 <친언니>: 녀맹통신원 소식	24

단어를 포함한 기사는 12회 수록하였는데 그중에서 11건이 1990년 이후에 나왔다. 11건의 기사게재 시기를 구분해 보면 1992~1998년 사이에 5건이 몰려 있고 2001~2008년 기간에 6건이 나온다. 1990년 이전에 게재된 단 한 건의 기사는 1967년 10월호에 수록된 “영예군인의 안해”가 바로 그것이다.

<표 1>에 제시해 놓은 12건의 기사는 영예군인과 그를 보살피는 여성의 관계 유형을 알려주는 단초를 제공한다. 필자는 이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예군인이나 특류영예군인이 어떻게 가정을 이루는지, 이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안해와 남편”이라는 가족관계를 만들어 가는지 관찰하기 위해 『조선여성』 자료에서 제목에 가정이나 가족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기사를 골라낸 뒤 그 기사의 내용에서 영예군인 이야기를 다루는 사례를 선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아래 <표 2>에 제시해 놓은 10건의 기사 목록을 작성할 수 있었다.

<표 2> 제목에 가정·가족이 포함된 『조선여성』 기사 중에서 영예군인 이야기를 다루는 사례

권호	제목	쪽
1964.11	사랑, 결혼, 가정: 우리 시대의 참된 부부	40
1964.12	사랑, 결혼, 가정: 사랑에 대한 이야기	36
1965.01	사랑, 결혼, 가정: 사랑에 대한 이야기	40
1991.04	당의 은정속에 꽃피는 새가정: 김기운 동무가 일하는 병원의 10명 영예군인 안해들에 대한 이야기	33
1992.05	독자의 편지: 축복받는 가정	33
1997.04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라: 우리 가정의 영원한 아버지	12
2002.03	선군시대에 꽃핀 새 가정	34
2003.12	단상: 우리 집은 대가정	41
2006.08	행복한 가정	48
2007.06	녀맹통신원 소식: 하나의 대가정	36

<표 2>를 살펴보면 1964~1965년 시기에 3건의 기사가 나온 반면 1991~2007년 기간에는 해당 기사가 7건에 이른다. 이 경우에도 <표 1>과 마찬가지로 1990년 이전 기사는 1960년대 중반에 몰려 있고 1990년 이후 기사에 비해 그 숫자가 많지 않다는 공통점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해당 유형 기사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도 <표 1>과 <표 2>는 공통점을 지닌다.

왜 이런 공통점이 나타나는 것일까? 『조선녀성』에 나타나는 1960년대 영예군인 이야기는 1990년 이후 영예군인 이야기와 어떤 차이점을 지니는 것일까? 북한사회에서 통용되던 영예군인 담론은 시기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진 것일까? 이런 의문점은 앞으로 분석과정을 통해 해소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표 1>과 <표 2>에 제시한 총 22건의 기사를 분석대상 자료로 삼는다. 22건의 기사가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조선녀성』이 영예군인과 그들의 가정·가족 이야기를 다루어 온 현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필요한 필요·충분조건을 충족시킬 정도의 분량은 아닐지도 모른다.³⁸⁾ 그러나 해당 분야의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새로운 주제를 탐색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최소한의 요건은 갖추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표 1>과 <표 2>의 기사목록과 그 내용을 기초적인 분석대상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38) 1956년 1월호 이후 2008년 12월호 『조선녀성』에서 영예군인이라는 단어가 제목에 들어간 기사를 찾아 작성한 <표 1> 자료는 여러 차례 검토를 통해 확장할 수 있었지만 <표 2> 자료는 시간과 노력을 더 투자하여 조사과정을 치밀하게 하면 해당 유형의 기사를 더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4. 남성 영예군인과 여성 영예군인, 그리고 이들을 돌보는 여성

분석대상 기사 총 22건 중에서 남성 영예군인과 그를 돌보는 여성의 관계를 묘사한 경우는 17건으로 77.3%에 달한다. 그런데 여성 영예군인이 주인공인 기사는 총 5건에 불과하고 그중에서도 2건의 기사는 같은 이야기의 전·후편이기 때문에³⁹⁾ 이런 유형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사실상 4개로 볼 수 있다. 더구나 4개의 이야기 중에서 여성 영예군인을 여맹조직과 여맹원이 돌보는 내용을 소개한 기사가 2건에 이른다. 결국 여성 영예군인과 그녀를 돌보는 남성의 관계를 묘사하는 기사는 최종적으로 2건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부분에서는 각각의 유형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남성 영예군인과 그를 돌보는 여성의 관계

분석대상 자료로 선정한 22건의 기사 중에서 <표 1>의 10건과 <표 2>의 7건 등 17건이 남성 영예군인을 돌보는 여성의 모습을 다양하게 묘사한다. 우선 <표 1>을 살펴보면 남성 영예군인을 돌보는 여성의 모습은 “안해”와 더불어 “녀맹위원회 일군들과 녀맹원”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가장 많아서 각각 4건에 이른다. 반면 “리발사”와 “녀의사”의 위치에서 남성 영예군인을 돌보는 여성에 관한 기사는 각각 1건이었다. 그런가 하면 <표 2>에서 남성 영예군인을 돌보는 여

39) 신영자, “사랑, 결혼, 가정: 사랑에 대한 이야기,” 『조선녀성』, 12월호(1964), 36~38쪽; 신영자, “사랑, 결혼, 가정: 사랑에 대한 이야기,” 『조선녀성』, 1월호(1965), 40~42쪽.

성의 모습을 전하는 기사는 7건인데 그중에 6건이 “안해”의 위치에서 남편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내용이다. 나머지 1건의 기사는 “단천제련소 녀맹초급일군인 탁아소장 최윤금동무”가 “특류영예군인의 건강을 위해 닭곰, 토끼곰도 수없이 마련”한다는 이야기를 전해준다.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총 22건의 기사 중에서 46%에 해당하는 10건이 “안해”의 위치에서 남성 영예군인을 돌보는 여성을 소개하는 것이다. 한편 “녀맹위원회 일군”이나 “녀맹원”들이 “친어머니, 친누이의 심정으로” 영예군인을 정성껏 돌본다는 이야기는 5건에 이른다. 재미있는 사실은 여맹원들이 특류영예군인을 정성껏 돌보는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아들의 앞날을 걱정하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마음씨 고운 처녀를 골라 짝을 무어줄 결심을 안고 그를 물심양면으로 더 힘껏 돕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⁴⁰⁾

결국 분석대상 자료에 근거하여 남성 영예군인과 그를 돌보는 여성의 관계를 유형화해보면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남편과 안해” 관계로 귀결된다. 다음으로 여맹조직과 여맹원이 나서서 영예군인을 돌보는 사례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발사나 여의사처럼 각자 자신의 직장에서 일하면서 영예군인을 적극적으로 돕는 여성의 모습도 보인다. 이제 각각의 유형에 해당하는 여성들이 남성 영예군인을 어떻게 돌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영예군인 남편과 그를 돌보는 “안해”

영예군인 남편과 그를 돌보는 “안해” 이야기에 등장하는 남성은 “조국보위초소에서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다가 뜻하지 않은 일로 하반

40) 김희백, “한 특류영예군인을 위해 바치는 정성,” 44~45쪽.

신 불수의 몸이” 되었거나⁴¹⁾ “전투에서 다친 부상으로 하여 … 10여 년 동안 자리에 누워” 고생하는가 하면⁴²⁾ “량팔을 잃고 눈까지 상하여 겨우 한쪽 눈으로 사람이나 가려볼” 정도로⁴³⁾ 심한 상처를 입은 상태인 것으로 나온다. 그 이외에 부상이 얼마나 심한지 구체적인 상태를 서술한 것은 아니지만 그를 만난 여성이 “안해이자 간호원으로 남편의 두 손이 되고 눈이 되어” 살뜰히 보살폈다는⁴⁴⁾ 이야기로 전반적인 상황을 짐작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영예군인을 남편으로 선택하는 여성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성 지도원으로 있는 총각”이나 “농산기사”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혼삿말이” 들어오는가 하면⁴⁵⁾ “선반기술을 배워 주고 진심으로 도와주던 림름한 총각도” 있었는데 영예군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두 말 없이 그와 가정을 이루었던”⁴⁶⁾ 처녀들이다. 또한 이들은 “남달리 희망도 포부도 컸던 딸”이었고⁴⁷⁾ “뜨거운 동지애와 인간애”를 지니고 “한 번 결심하면 끝장을 보고야 마는” 강한 의지의 소유자로,⁴⁸⁾ “병원 사로청초급단체 위원장으로 사업하면서 환자치료

41) 김순옥, “독자의 편지: 축복받는 가정,” 『조선녀성』, 누계 462호(1992), 33쪽.

42) 김순영,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리: 우리 가정의 영원한 아버지,” 『조선녀성』, 누계 491호(1997), 12쪽.

43) 리병규, “선군시대에 꽃핀 새 가정: 사리원시 탁아소 보육원들에 대한 이야기,” 『조선녀성』, 누계 526호(2002), 34쪽.

44) 유정옥, “영예군인의 안해,” 37~38쪽.

45) 위의 글, 37~38쪽.

46) 태은식, “희천의 <영예군인집>: 서상보, 류찬실 로인과 그의 네 딸에 대한 이야기,” 32~33쪽.

47) 위의 글, 32~33쪽.

48) 리병규, “선군시대에 꽃핀 새 가정: 사리원시 탁아소 보육원들에 대한 이야기,” 34쪽.

간호사업에서도 남달리 모범”으로, “용모뿐 아니라 마음씨까지도 비단결처럼 고와 소문난 처녀”로, “수산사업소에서 양식공으로 일하면서 온 집안의 막내둥이로 사랑을 받던” 인물로 나온다.⁴⁹⁾ 이런 묘사를 통해서 『조선녀성』의 관련 기사는 영예군인과 결혼한 처녀들은 자신이 원하면 얼마든지 “인물 잘나고 체격 좋고 똑똑한 청년”을 배우자로 맞이할 수 있을 만큼 “훌륭한” 여성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⁵⁰⁾

이야기의 흐름은 이렇게 “훌륭한” 처녀들이 자신의 남편이 될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결혼을 결심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한번 만나본 적이 없건만 그 청년의 모습은 순옥동무에게 썩 가까웠고 날이 갈수록 가슴에 뜨겁게 안겨오는 것을”⁵¹⁾ 어쩔 수 없어 하거나 간호원양성소를 졸업하고 영예군인 병동에 배치 받은 뒤 그들을 치료하면서 “가슴속에 소중히 뿌리내린 사랑의 감정을 땅크병 출신의 영예군인”에게 털어놓고 결혼을 결심하는가 하면 동창생이 영예군인과 결혼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조용히 설레기 시작하여” 자기도 “조국과 인민 앞에 성실한 위훈의 탑을 쌓다가 부상당한 그런 영예군인의 영원한 길동무가 되고 싶어서” 영예군인을 남편으로 맞이하는 여성의 이야기가 등장한다.⁵²⁾

물론 이렇게 잘 모르는 영예군인을 남편으로 맞이하는 일에 대해 갈등하는 경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김정일이 직접 “딸을 4명씩이

49) “당의 은정속에 꽃피나는 새가정,” 33~35쪽.

50) 태은식, “희천의 <영예군인집>: 서상보, 류찬실 로인과 그의 네 딸에 대한 이야기,” 32~33쪽; 위의 글, 33~35쪽.

51) 유정옥, “영예군인의 안해,” 37~38쪽.

52) “당의 은정속에 꽃피나는 새가정,” 33~35쪽.

나 영예군인들에게 시집보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칭찬할 정도로 모범적인 인물로 묘사되는 희천의 “영예군인집 셋째 딸” 서창순도 9월방직공장에서 작업반장으로 일하다가 집에 다니러 온 며칠 사이에 영예군인 총각과 혼삿말이 나자 “뜻밖의 일”에 한동안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였던 것으로 나온다.⁵³⁾ 그러나 곧 “늠우치며 신념의 맹세를 다지고” 자신뿐만 아니라 동생이나 동창생을 비롯한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을 “영예군인의 안해가 되도록 교양하고 이끌어주는” 인물로 변모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⁵⁴⁾

영예군인과 결혼을 처음 생각할 때 “드팀이 없는” 처녀도 있지만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사례가 나타나듯이 부모나 주변 인물의 반응도 비슷하게 나누어진다. 대부분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일이 성사되도록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지만 모두 축복만 하는 것은 아니다. “행복하게만 자라온 자기 딸이 어렵고 힘든 인생길을 주저와 동요를 모르고 끝까지 걸을 수 있겠는지 하는 위구심으로 하여 장한 결심을 한 딸이었지만 선뜻 축복해주지 못하는” 부모도 있는 것이다.⁵⁵⁾ 그런데 이 경우에는 딸이 보육원으로 근무하는 시 탁아소 소장과 동료 보육원이 나서서 부모를 찾아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해 오는 과정에 발현된 량명심 동무의 뜨거운 동지애와 인간애에 대하여, 한번 결심하면 끝장을 보고야 마는 그의 강한 의지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면서 비록 나이는 어려도 큰마음을 지닌 딸”이라고 칭찬해준다. 물론 이런 칭찬을 들은 부모는 “집단의 믿음과 사랑 속에 사는 딸이 한

53) 태은식, “희천의 <영예군인집>: 서상보, 류찬실 로인과 그의 네 딸에 대한 이야기,” 32~33쪽.

54) 위의 글, 32~33쪽; “당의 은정속에 꽃피나는 새가정,” 33~35쪽.

55) 리병규, “선군시대에 꽃핀 새 가정: 사리원시 탁아소 보육원들에 대한 이야기,” 34쪽.

결 돋보이고 자랑스러워 딸의 결심을 적극 지지해” 주게 된다.

결과적으로 영예군인과 혼삿말이 나왔을 때 선뜻 결혼을 결심하는 처녀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처음에 흔들리는 처녀도 나타난다. 또한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처녀가 영예군인과 결혼하도록 적극 권유하거나 찬성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선뜻 축복해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영예군인과 결혼을 결심하는 처녀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다잡을 때 어떤 논리를 동원하는가 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이때 동원되는 논리야말로 북한당국이 『조선녀성』을 통해 주요 독자층인 북한여성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영예군인과 결혼을 결심하는 여성들이 어떤 논리를 내세우는지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해 놓았다.

조국의 가장 준엄한 시기, 젊음을 바쳐 승리를 쟁취하는 싸움터에 서 본 순옥동무는 그 한 대오에서 같이 싸우다가 적탄에 부상당한 전우의 길 동무가 된다는 것은 조선녀성의 도리이며 숭고한 의무라고 생각했다.⁵⁶⁾

창순이는 인민군 군인들이 피 흘리며 지켜주는 조국에서 손뚱눈 하나 다치지 않고 마음껏 배우고 자란 내가 그 피흘린 전사를 외면한다면 정말 무슨 양심 있는 인간이고 우리 시대의 청춘이라 이렇게 뉘우치며 신념의 맹세를 다지었다.⁵⁷⁾

56) 유정옥, “영예군인의 안해,” 37~38쪽.

57) 태은식, “희천의 <영예군인집>: 서상보, 류찬실 로인과 그의 네 딸에 대한 이야기,” 32~33쪽.

내 이런 사람을 위해 일생을 곁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찌 당의 품속에서 자란 새 세대 녀성이라고 하랴.⁵⁸⁾

이야기에 등장하는 여성들이 영예군인과 결혼을 결심하는 이유는 그 길이 바로 “조선녀성의 도리이며 숭고한 의무”인데 그 길을 따르지 않으면 곧 양심도 없고 이 시대의 청춘도 아닌 존재로 전락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니 결국 “당의 품속에서 자란 새 세대”라면 마땅히 그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논리가 도출된다. 바로 이 논리가 북한당국이 『조선녀성』을 통해 주요 독자층인 여성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이다.

(2) 남성 영예군인을 돌보는 “녀맹위원회 일군”과 “녀맹원”

남성 영예군인을 돌보는 여성의 모습 중에서 “안해”에 버금갈 만큼 중요한 유형이 바로 “녀맹위원회 일군들과 녀맹원”이다. 이들은 “집이 좀 좁아보이는” 영예군인을 위하여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집을 지어주기도 하고⁵⁹⁾ “건강회복에 보약이 되라고 닭곰, 토끼곰을 들고” 오는가 하면 “쫄떡, 산나물김치, 송편 등 갖가지 민속음식으로” 영예군인을 기쁘게 해주었고 “<전호숙의 나의 노래>, <내 나라의 푸른 하늘> 등 혁명적인 노래를 불러주어 그에게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는” 활동을 한다.⁶⁰⁾

또한 특류영예군인이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가도록 창작토론도 함께 하고 선군장정의 길 걸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전선시찰소식

58) “당의 은정속에 꽃피나는 새가정,” 33~35쪽.

59) 김희백, “새날동에 생긴 영예군인 살림집,” 33쪽.

60) 김희백, “한 특류영예군인을 위해 바치는 정성,” 44~45쪽.

도 전해” 준다.⁶¹⁾ 그런가 하면 “10여 년 세월” 영예군인 가정을 위해 “모든 정성을 다 바쳐오고 있는 구월동 녀맹원들의 아름다운 소행자료”도 있다.⁶²⁾ 이들은 영예군인 가정과 자기들의 가정을 “언제나 한 가정, 한식솔로 여기며 별음식이 하나 생겨도 사랑하는 자식들의 손에 쥐여주기에 앞서 영예군인부터 먼저 생각하고 결혼식을 비롯한 가정의 대사를 할 때에도 상에 놓았던 음식들 중에서 제일 좋은 음식들을 골라 영예군인을 찾아가 인사하는 것을 응당한 도리로, 의무로 여기는” 여맹원들이었다. 만약 영예군인이 총각이라면 여맹원들은 “마음씨 고운 처녀를 골라 짝을 무어줄 결심을 안고” 힘껏 지원하게 된다.⁶³⁾ 여맹원들이 영예군인을 돌보면서 어떤 논리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지 다음 사례를 통해 드러난다.

그 때로 말하면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막상 살림집을 짓자고 하니 경험도 없는 그들에게 애로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였다.

벽체를 쌓던 날이었다. 블록을 쌓아본 경험이 없다보니 얼마 못 올라가서 무너지고 말았다. 일부 녀맹원들은 남정들의 손을 빌려야지 우리 힘으로는 힘들겠다고 하면서 손맥을 놓으려 했다.

바로 이때 시녀맹위원장 문명숙동무의 목소리가 힘 있게 울렸다.

<동무들, 기운을 내자요. 우리 영예군인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무엇인들 못하겠나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자기가 먼저 팔소매를

61) “한 특류영예군인을 위해 바쳐가는 뜨거운 마음,” 『조선녀성』, 누계 564호(2005), 24쪽.

62) 전호남, “영예군인을 위해 바치는 뜨거운 정성: 평성시 구월동초급녀맹위원회 일군들과 녀맹원들,” 『조선녀성』, 누계 578호(2006), 40~41쪽.

63) 김희백, “한 특류영예군인을 위해 바치는 정성,” 44~45쪽.

건어붙이고 다시 벽체를 쌓아나갔다.⁶⁴⁾

이때 부문위원장 광월동무는 생각이 깊었다.

(우리가 그를 도와주자. 저런 총대병사들이 조국을 지켜가기에 우리가 사회주의 건설도 행복한 생활도 마음껏 창조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를 성심성의껏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선군시대의 녀성들이라고 뗏뗏이 말할 수 있겠는가.)

광월동무는 녀맹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버이장군님께서는 영예군인들이 혁명의 꽃을 계속 피우도록 따 뜻이 보살피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봉철 동무의 친어머니, 누이가 됩시다.>⁶⁵⁾

집을 지어 본 경험이 없는 여맹원들이 벽체를 쌓아 올리다 보니 계속 무너져 내렸고 마침내 “우리 힘으로는 힘들겠다고” 포기하려 하는 순간 이들이 불가능에 도전하도록 이끌어 준 요인은 바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이라면 못 할 것이 없다는 북한 내부의 논리였다. 또한 스스로 “선군시대의 녀성들이라고 뗏뗏이 말할” 자격을 상실하게 될까봐 영예군인을 보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는 논리도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아버이장군님께서” 영예군인을 보살피는 만큼 여맹원들도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영예군인의 친어머니와 누이가 될 것을 다짐하게 된다.

북한 사회에서 이런 논리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통제해야 하는 여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단순히 여맹원의 경우에만 국한되는 것이

64) 김희백, “새날동에 생긴 영예군인 살림집,” 33쪽.

65) 김희백, “한 특류영예군인을 위해 바치는 정성,” 44~45쪽.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여성이라면 누구나 이런 논리에 따라 영예군인을 돌보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가 『조선녀성』의 관련 기사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

(3) 영예군인을 돌보는 “리발사”와 “녀의사”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조선녀성』 기사 중에서 남성 영예군인을 돌보는 여성 중에는 “리발사”와 “녀의사”도 등장한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여성 이발사는 “구장군 편의봉사관리소 종합작업장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최응호동무”인데 이 여인은 “30여 년을 리발사로 성실히 일하면서 사람들의 높은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⁶⁶⁾ 한편 여의사는 “김만유병원 의사 김선화동무”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1월 어느 날” 퇴근길에서 “삼륜차에 오른 영예군인이 안해의 도움을 받아 긴 마을등성을 무겁게 오르고” 있는 것을 보고 “얼른 삼륜차를 가볍게” 떠밀었던 것을 계기로 “특류영예군인 윤중수동무”를 돕기 시작한 여성이다.⁶⁷⁾

이발사로 일하는 최응호는 어느 날 자신이 담당하는 <영예군인 자리>에 찾아온 손님의 머리를 “정성껏 깎으며” 깊이 생각한 결과, 영예군인들이 “리발소로 찾아오게 하는 것은 자신의 도리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다. 왜냐하면 영예군인들이 “최고사령관 동지의 명령을 받들어 한 목숨 내걸고 조국의 존토를 지켜 싸울 때” 자신은 “책가방 매고 학교에” 갔기 때문이다. 결국 이 여인은 그날부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영예군인의 집을 찾아 이발해 줄 것을 결심하고 실천에 옮긴다.

66) 김희백, “영예군인들이 사랑하는 리발사: 구장군 편의봉사관리소 녀맹원 최응호동무,” 34쪽.

67) 김명규, “영예군인과 녀의사: 김만유병원 의사 김선화동무,” 34~35쪽.

특류영예군인 윤중수를 도와주던 의사 김선희는 “신약과 고려약을 배합하며 그에 맞는 약물을 찾아” 집중적인 치료를 실시하는 한편 “병의 차도며 약물반응정도를 알기 위해 구급실험을 조직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또한 병 치료와 함께 영예군인의 “허약해진 몸을 추세 위주기 위한 방도와 대책을 동시에 세워” 놓고 “단너삼을 넣고 만든 닭곰, 토끼곰도 약과 함께 들고 가고 산꿀이며 고급어죽 등 특산물이 생겨도 그의 식탁앞에” 올려 주었다. 이렇게 “직업적인 의사의 지성에 인간의 고상하고 뜨거운 정까지 합쳐지자 윤중수동무의 병은 인차 차도를 보이더니 드디어 점차 가셔지게” 되었고 마침내 “몸상태의 기적적인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다.

여성 이발사와 여의사의 이야기는 영예군인을 돌보는 것이 단순히 “안해”와 “녀맹원”의 일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다. 말하자면 여성이 어떤 직업에 종사하더라도 자신의 직업을 통해 할 수 있는 분야에 기여함으로써 영예군인의 생활을 보살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이다.

2) 남성 영예군인과 여성 영예군인 비교

22개의 기사 중에서 여성 영예군인의 생활을 다루는 기사는 모두 5건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중에서 1964년 12월호와 1965년 1월호에 나오는 “사랑, 결혼, 가정: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1953년 8월 김책공대 로동학원에서 김영희와 신승철이 만나 결혼에 이르게 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성 영예군인 이야기는 사실상 네 편이다.

<표 3> 여성 영예군인의 생활을 다루는 기사

권호	제목	쪽
1964.11	사랑, 결혼, 가정: 우리 시대의 참된 부부	40
1964.12	사랑, 결혼, 가정: 사랑에 대한 이야기	36
1965.01	사랑, 결혼, 가정: 사랑에 대한 이야기	40
1998.04	영예군인들을 위한 뜨거운 마음(사진)	24
2008.04	영예군인의 <친언니>: 녀맹통신원 소식	24

네 편 중에서 두 편은 1960년대 중반에 나왔고 나머지 두 편은 1990년대 이후의 이야기로 구분이 된다. 그런데 1960년대 기사 두 편에는 여성 영예군인을 돌보는 남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반면 1990년 이후에 나온 두 편의 기사는 여성 영예군인을 보살피는 여맹조직과 여맹원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1) 영예군인 “안해”와 그녀를 돌보는 남편

1960년대에 나온 두 편의 기사는 “남조선에 있을 때 미국놈에게” 상처를 입어 척추를 다친 김연란과 “나어린 몸으로 조국이 어려울 때 총을 잡고 원수와 싸우다가” 팔을 다친 김영희, 두 여인의 남편 이야기를 전해준다. 김연란은 결혼을 하고 난 뒤 “불구자”가 되었고 김영희는 한쪽 팔을 다친 상태에서 훗날 남편이 될 청년을 만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두 여인 모두 남편의 보살핌을 받았다.

우선 김연란은 아이를 낳고 반년이 지난 뒤 “갑자기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불구자가” 되었는데 남편이 극진하게 간호했다. 남편 신통선은 직장에서 늦게 와도 “웃음부터 지었고 더운 밥을 지어 먹이고 약을 달이고 다리를 주물러준다, 목욕을 시킨다 하면서 앓을 새도 없이 땀 뱅 뱅 돌았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차도가 없었고 결국 김연란은 “선천

영예전상자 병원”으로 떠났다. 병원에 간 이후에도 남편의 정성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남편이 “어김없이 1주일에 한 번씩 날아오는 편지”를 통해 “방을 꾸리는 것으로부터 아들의 교양에 대해, 자기의 사업에 대해 낱알이 적어” 보내기 때문에 김연란은 “병원에 누워서도 집 살림살이를 훤히” 알고 있었다. 김연란은 “이불보와 책상보, 레스며 아이의 내의, 남편의 덧양말을 비롯하여 집 살림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보냈다.” 그러면서 “비록 나는 10년 가까이 누워 있지만 언제나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하고 말한다.

한편 김영희는 전쟁에서 팔을 다친 뒤 “김책공대 로동학원”으로 공부하러 갔을 때 나중에 남편이 된 신승철을 만났다. 신승철은 “나의 이 두 팔이 영희의 팔을 대신할 수 없을가” 하는 말로 청혼을 했다. 또 아버지가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하면서 “한두 달도 아닌 일생을 몸이 불편한 안해와 함께 살아 나갈 수 있겠느냐고” 하자 사람의 아름다움이 온전한 육체에만 있지 않으며 영희는 “나 어린 몸으로 조국이 어려울 때 총을 잡고 원쑤와 싸웠던” 만큼 “원쑤들이 보란듯이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로 설득하여 마침내 결혼에 이른다. 신승철은 아내가 아이를 낳고 난 뒤에도 “아침이면 어린애까지 업혀 주고서야” 직장에 나갔고 “저녁이면 한 시간이라도 더 안해가 학습할 수 있게 아기를 봐 주는” 남편이었다. 그렇게 “네 손이 할 모든 일을 세 손이 해 나가면서” 행복하게 살았다.

『조선녀성』은 두 여인의 남편이야말로 아내를 “극진하게” 간호했던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그런데 아내를 보살피는 남편의 노력은 구체적으로 “1주일에 한 번씩 날아오는 편지”를 쓰거나 아침마다 한쪽 팔을 쓰지 못하는 아내에게 어린애를 업혀 주고 자신은 직장에 출근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결국 영예군인 “안해”를 보살피는 남편은

비록 극진하게 간호한다고 해도 영예군인 남편을 돌보는 “안해”처럼 “날이 가고 달이 가도 한 번 먹은 마음 변함없이 혁명전우의 손발이 되어 10여 년을 하루와 같이 가정과 일터에서 꽃을 피워 온” 수준은 아닌 것이다.⁶⁸⁾

(2) 여성 영예군인을 돌보는 “녀맹위원회 일군”과 “녀맹원”

1998년 4월호 기사는 “모란봉구역 전우동 57인민반의 초급녀맹위원회” 녀맹원들이 영예군인 리영옥 동무를 성심성의껏 돌보아주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이들은 영예군인 리영옥이 “언제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살라고” 노래를 불러주는가 하면 구미에 맞는 음식도 가져다 주고 “당의 높은 뜻을 함께 심장에 새기며” 사소한 불편이 있을세라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 그리고 2008년 4월호 기사는 “남포시 상대두동 초급녀맹위원회” 5부문 3초급단체위원장 임연옥이 다리를 쓰지 못하는 영예군인 조금녀 동무가 제42인민반에 사는 것을 알고 돌보아준다는 내용이었다. 임연옥은 “조금녀 동무가 마음속의 군복을 벗지 않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딸로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가도록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적극 도와주었다. 명절이나 기념일이면 정성껏 마련한 “부엌세간과 식료품을 들고 조금녀 동무를 찾았고 그가 앓을 때면 약을 마련해 가지고 가서 정성껏 구완해” 주기도 했다. 그래서 조금녀는 임연옥을 “친언니”라 부르며 따른다는 것이었다.

여성 영예군인을 돌보는 여맹원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 영예군인을 보살필 때와 별로 다르지 않다. 다만 여성 영예군인이 시집을 안 간 처녀인지 알아보고 배우자를 구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

68) 유정옥, “영예군인의 안해,” 37~38쪽.

은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점은 남성 영예군인의 경우와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3) 영예군인 이야기의 시대적 변화

분석대상 기사 총 22건 중에서 <표 1>의 1건과 <표 2>의 3건 등 4건은 1960년대에 나온 반면 나머지 18건의 기사는 1990년 이후에 나왔다. 결국 분석대상 자료 중에 대다수 기사는 1990년대 이후에 나왔고 일부 1960년대 기사가 있는 반면에 1970년대와 1980년대 기사는 없었다. 이 부분에서는 1960년대 영예군인 이야기와 1990년대 영예군인 이야기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살펴보자.

1960년대 영예군인 이야기는 4건의 기사에 나오지만 1964년 12월호와 1965년 1월호가 동일 인물에 관한 내용이라서 사실상 세 편의 이야기로 압축된다. 그 세 편 가운데 두 편에는 여성 영예군인을 보살피는 남편이 등장하는 내용이다.⁶⁹⁾ 나머지 한 편은 남성 영예군인을 만나기도 전에 결혼을 결심한 처녀의 이야기였다.⁷⁰⁾ 재미있는 사실은 남편을 돌보는 아내의 이야기는 1990년대 이야기와 별로 다른 점이 없는데 아내를 돌보는 남편의 모습은 1960년대 당시에만 등장한다는 점이다. 1990년 이후에는 “불구자”가 된 아내를 돌보는 남편의 이야기를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1990년대 영예군인 이야기는 18건의 기사에 나온다. 그중에서 여

69) 전관준, “사랑, 결혼, 가정: 우리 시대의 참된 부부,” 『조선녀성』, 11월호(1964), 40~43쪽; 신영자, “사랑, 결혼, 가정: 사랑에 대한 이야기,” 『조선녀성』, 12월호(1964), 36~38쪽; 신영자, “사랑, 결혼, 가정: 사랑에 대한 이야기,” 『조선녀성』, 1월호(1965), 40~42쪽.

70) 유정옥, “영예군인의 안해,” 37~38쪽.

성 영예군인이 주인공인 기사는 2건인데 이들을 돌보는 사람 중에 남편은 등장하지 않는다. 여성 영예군인을 돌보는 사람은 오직 여맹원과 여맹조직 일꾼뿐이다. 반면 남성 영예군인을 돌보는 사람은 “안해”를 비롯하여 여맹원과 여맹조직 일꾼, 이발사와 여의사 등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안해”의 “숭고한 희생”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남성 영예군인이 주인공인 경우에는 1960년대와 1990년대 이야기를 비교해 보았을 때 뚜렷한 차이점을 찾을 수 없다. 1960년대와 마찬가지로 1990년대 이야기에서도 여전히 얼굴도 모르는 처녀가 결혼을 결심하고 아무리 영예군인의 부상 정도가 심해도 마음이 “드눌지 않고” 끝까지 헌신하는 아내를 이미 만나서 잘 사는 경우가 많다. 만약 영예군인이 아직도 결혼을 하지 않은 총각이라면 주변의 여맹원과 여맹조직의 도움으로 곧 “안해가 될 처녀를” 만나서 그녀의 살뜰한 보살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은 이야기의 흐름을 통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반면 영예군인이 여성인 경우에는 1960년대와 1990년대 이야기의 전개 방식이 완연하게 다르다. 1960년대 이야기에 등장하는 여성 영예군인은 한쪽 팔을 못 쓰는 상태에서 훌륭한 총각을 만나 결혼하기도 하고 결혼 이후 다리를 못 쓰는 “불구자”가 되자 남편의 보살핌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여성 영예군인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도 이들의 결혼 여부를 언급하는 기사는 없었다. 또한 여성 영예군인의 가족관계에 대한 설명도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다만 여맹원과 여맹조직에서 여성 영예군인의 생활을 보살피는 것으로 서술해 놓았을 따름이다.

5. 결론

북한사회에서 영예군인은 육체적으로 장애를 지니고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마음속의 군복을 벗지 않은” 영예로운 존재로 규정된다. 따라서 영예군인은 마땅히 “국가”가 나서서 돌봐주어야 할 대상이다. 북한당국은 공식담론을 통해 영예군인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몸 바쳐 싸우다 부상”을 당했고 “자기 개인을 위하여 싸우다 부상당한 것도 아닌” 만큼 당연히 이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하고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돌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영예군인을 사회적으로 우대하고 이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돌리려고 하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게 마련이다.

북한당국은 인민보건법이나 장애자지원법 등을 통해 영예군인을 우대할 것을 규정하는 한편 영예군인학교나 영예군인공장을 설립하여 이들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북한당국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에 더하여 “사회적 우대”가 보장되는 상황이라고 해도 막상 육체적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해진 상태에서 영예군인이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유지해 나가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당국은 여성의 헌신적인 노력을 동원하여 영예군인의 불편함을 덜어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당국이 어떤 자원을 동원하여 영예군인을 “국가에서” 돌봐주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다. 그러나 『조선녀성』의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북한당국이 영예군인을 사회적 차원에서 보살피는 과정에서 “안해”와 “녀맹위원회 일군” 및 “녀맹

원”을 비롯한 여성들의 “숭고한 희생”에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은 분명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똑같이 장애 정도가 심한 영예군인이라고 해도 성별에 따라 이들이 누리게 되는 사회적 우대의 내용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사안이다. 『조선녀성』에서 관련 기사를 분석한 결과, 영예군인 이야기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남성 영예군인과 그를 헌신적으로 보살피는 “안해” 이야기인 것으로 나타난다. “안해” 다음으로 남성 영예군인을 열심히 돌보는 집단은 “녀맹위원회 일군”이나 “녀맹원”이다. 그 이외에도 이발사나 여의사처럼 사회 각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남성 영예군인을 보살피는 것으로 나온다.

이와 같이 남성 영예군인은 일차적으로 “안해”가 보살피고 그 이외에도 다른 여성들이 힘을 합쳐 도와주지만 여성 영예군인을 돌보는 사람은 남편이 아닌 경우도 많다. 여성 영예군인을 돌보는 남편의 이야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내용은 1960년대에 나왔다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다. 1990년대에 등장하는 여성 영예군인은 남편이 아니라 “녀맹위원회 일군”이나 “녀맹원”이 보살핀다.

『조선녀성』에 나오는 영예군인 이야기를 분석해 본 결과를 요약하면 북한당국이 주요 독자층인 여성을 대상으로 “조선녀성의 도리이며 숭고한 의무”를 지키고 “신념의 맹세”를 다지면서 “당의 품 속에서 자란 새 세대 녀성”으로서 마땅히 따라야 할 길을 가거나 “선군시대의 녀성”으로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이라면 못 할 것이 없다는 자세로 영예군인을 보살피야 한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한다. 그런데 여성이 영예군인이 되어 사회의 보살핌을 받아야 될 존재가 되면 그들을 보살피는 사람도 여성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 『조선녀성』이

제시하는 담론의 내용이다.

『조선녀성』이 북한여성들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희생을 촉구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북한당국은 왜 이런 메시지를 여성에게 전달하려 하는가? 이런 메시지를 여성에게 전달함으로써 북한당국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현재 단계에서 『조선녀성』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만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답변을 뚜렷하게 제시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다만 “너무도 일찍이 사회의 짐이 된” 영예군인 문제를 그 영예군인과 결혼하기로 결심하는 처녀의 “숭고한 희생정신”에⁷¹⁾ 기대어 해결하려는 것이 북한당국의 궁극적 의도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reasonable doubt)을 제기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 접수: 6월 22일 / ■ 채택: 8월 27일

71) 리병규, “선군시대에 꽃핀 새 가정: 사리원시 탁아소 보육원들에 대한 이야기,” 『조선녀성』, 34쪽.

참고문헌

1. 북한자료

1) 단행본

『조선말 대사전(증보판)』(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7).

2) 논문

김일성, “피로써 조국을 지킨 영예군인들은 사회주의 건설에도 모범이 되어야 한다,” 『김일성저작집』, 제1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_____, “함흥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처럼 공장을 알뜰히 꾸리자,” 『김일성저작집』, 제2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_____, “영예군인들은 혁명의 꽃을 계속 피우며 락천적으로 생활하여야 한다,” 『김일성저작집』, 제4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3) 신문 및 기타자료

“나라의 주인으로 키워주신 어버이품,” 『조선녀성』, 누계 605호(2008).

“한 특류영예군인을 위해 바쳐가는 뜨거운 마음,” 『조선녀성』, 누계 564호(2005), 24쪽.

“당의 은정속에 꽃피나는 새가정,” 『조선녀성』, 누계 455호(1991), 33~35쪽.

“영예군인의 딸,” 『천리마』, 통권 477호(1999).

“올려가라 혁명적 랑만의 노래, 불타는 충성의 노래,” 『조선예술』, 통권 410호(1991).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에 대한 존경,” 『조선녀성』, 누계 572호(2006).

“한 영예군인의 모습 앞에서,” 『조선문학』, 통권 527호(1991).

“한 영예군인의 집에 찾아오시여,” 『천리마』, 통권 436호(1995).

김명규, “영예군인과 녀의사: 김만유병원 의사 김선화동무,” 『조선녀성』, 누계 497호(1998).

김순영,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리: 우리 가정의 영원한 아버지,” 『조선녀성』, 누계 491호(1997), 12쪽.

김순옥, “독자의 편지: 축복받는 가정,” 『조선녀성』, 누계 462호(1992), 33쪽.

김인철, “그 영광은 한 영예군인 시인에게도,” 『청년문학』, 통권 475호(1998).

김희백, “새날동에 생긴 영예군인 살림집,” 『조선녀성』, 누계 480호(1995).

_____, “영예군인들이 사랑하는 리발사: 구장군 편의봉사관리소 녀맹원 최웅호동무,” 『조선녀성』, 누계 478호(1995).

_____, “한 특류영예군인을 위해 바치는 정성,” 『조선녀성』, 누계 561호(2005).

리명진, “녀성운동발전에 쌓아올리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 빛내주시여,” 『조선녀성』, 누계 602호(2008).

리병규, “선군시대에 꽃핀 새 가정: 사리원시 탁아소 보육원들에 대한 이야기,” 『조선녀성』, 누계 526호(2002).

신영자, “사랑, 결혼, 가정: 사랑에 대한 이야기,” 『조선녀성』, 12월호(1964).

_____, “사랑, 결혼, 가정: 사랑에 대한 이야기,” 『조선녀성』, 1월호(1965).

유정옥, “영예군인의 안해,” 『조선녀성』, 누계 264호(1967).

장철수, “녀성들을 나라의 역군으로 키워주시여,” 『조선녀성』, 누계 599호(2008).

조영순, “농촌여성의 현상보고” 『조선녀성』, 누계 1호(1946).

전관준, “사랑, 결혼, 가정: 우리 시대의 참된 부부,” 『조선녀성』, 11월호(1964).

전호남, “영예군인을 위해 바치는 뜨거운 정성: 평성시 구월동초급녀맹위원회 일군들과 녀맹원들,” 『조선녀성』, 누계 578호(2006).

태은식, “마음이 사랑하는 녀성,” 『조선녀성』, 누계 462호(1992).

_____, “희천의 <영예군인집>: 서상보, 류찬실 로인과 그의 네 딸에 대한 이야기,” 『조선녀성』, 누계 461호(1992).

2. 국내자료

1) 단행본

이철수, 『북한사회복지법제: 알파와 오메가』(서울: 높이깊이, 2005).

_____, 『북한보건의료법제: 원문과 해설』(서울: 아주남북한보건의료연구소, 2006).

2) 논문

김동일·배성직, “북한의 특수교육: 역사적 전개와 현황에 대한 이해,” 『특수교육연구』, 제8집(2001), 27~46쪽.

- 김석향, “남녀평등과 여성의 권리에 대한 북한당국의 공식담론 변화,” 『북한 연구학회보』, 제10권 1호(2006).
- 김석향·권혜진, “고난의 행군기 이후 북한당국의 공식담론 분석,” 『통일정책 연구』, 제18권 2호(2009).
- 노용오, “북한의 장애인복지 정책·제도·지원전략,” 『한국동북아논총』, 제41집 (2006), 215~234쪽.
- 박영자, “경제난 이후 북한 체제와 젠더의 구조 및 변화,” 『통일논총』, 제25권 (2007).
- 서곡숙, “거짓말/방문/가출이라는 북한영화의 내러티브 반복과 연기/침입/일탈이라는 북한여성의 자아정체성 재현,” 『영화연구』, 제33호(2007).
- 이상경, “북한 여성 작가의 작품에 나타난 여성 정체성에 대한 연구,” 『여성문학연구』, 제17권(2007).
- 임순희, “경제난과 북한여성,” 『통일논총』, 제25권(2007).
- 임옥규,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문학에 나타난 여성, 모성, 조국에 양상: 『조선 문학』(1997~2006)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16권(2007).
- 최선영, “북한여성의 지위와 역할 변화: 관련 법령분석을 중심으로,” 『동북아 연구』, 제23권 1호(2008), 87~110쪽.

Analysis on the stories of ‘honorable veterans’ and women who are committed to taking care them in the official discourse of DPRK

Kim, Seok-Hyang(North Korean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In every corner of the world, physically disabled people can be found, and a fair amount of information on their daily lives is exposed through the mass media. Yet, it is particularly difficult to come across any depiction of disabled people’s everyday lives in the North Korean mass media. The only type of disabled people whose lives are displayed through the media is the people who fall under the category of ‘honorable veterans’. An ‘honorable veteran’ refers to “a person who receives special benefits from the government because of their physical injuries incurred during their military service.” This group of disabled people frequently appears in North Korean magazines and TV shows as a hero/main character of a story.

The main reason behind the frequent appearance of ‘honorable veterans’ in the mass media, unlike the other types of disabled people, lies

in the existing structure of social discourse, which supports the belief system that it is only natural for the government to be responsible for their lives and treat them with respect. Under this framework of social discourse, a role of women is extremely crucial because women are the ones who devote their lives to respecting and taking care of ‘honorable veterans.’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 discourse framework by examining stories about a relationship between ‘honorable veterans’ and women who are committed to taking care them. These stories are selected from a state-owned magazine called “*Choson Neosung*(Women in North Korea).” “*Choson Neosung*,” which targets a female audience, is employed as a primary source for this research because women are always portrayed as a nurturing figure for ‘honorable veterans’ with no exception.

This paper examines twenty-two articles from “*Choson Neosung*,” in which a plot is developed around the daily lives of ‘honorable veterans.’ Out of the twenty-two, four stories were published during the 1960s, and the rest of the articles were published after 1990. There is no clear distinction between the stories published during the 1960s and the stories published in the 1990s when an ‘honorable veteran’ is a male in the story. Regardless of time, male ‘honorable veterans’ are looked after women of various occupation, social status, and relationship including his wife. This, however, does not apply to a case where an ‘honorable veteran’ is a female. In such case, the plot development becomes completely different between the stories published in the 1960s and the

ones published in the 1990s. In a story published in the 1960s, for example, a female ‘honorable veteran’ with a broken arm marries a well-respected man and she receives care from her husband even when she becomes a cripple later in her marriage. However, there is no reference to family and/or marriage life of a female ‘honorable veteran’ in the stories published in the 1990s. Instead, female ‘honorable veterans’ are nurtured by other women dispatched from female associations run by the government. Then, it is important to raise a reasonable doubt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has been attempting to solve the veteran issue through the ‘great sacrifice’ of women.

Keywords: Official discourse in DPRK, *Chosun Neosung*(Women in North Korea), honorable veterans in North Korea, disabled/handicapped people in North Korea